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시편 8,4)

내덕동 주교좌 성당 김은희 글라라

예수 마리아 요셉

신부님,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신부님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사시던 때는 시대적 조건이 하느님을 허락하지 않은 어둠밤 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때는 우리 인간이 만든 알 수 없는 질병이 우리를 마비시켜버리고 우왕좌왕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캄캄한 밤에 순수하게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오심을 알 수 있었듯이 이 어려움 안에서도 기도하며 하느님께 의지하던 교회가 저희들에게 신부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며 사는 3명의 동반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뭔가를 해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신부님이 가신 길을 한번 가보자! 알 수 없는 질병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해도 신부님의 시대와는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모색하고 결정을 한 후에 먼저 모두 같은 시간에 9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질병에 오염되지도 말고, 무사히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021년 3월 18일

드디어 첫 여정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배티 성지에서 시작하여 배티 성지에서 마치기로 한 계획에 따라 배티 성지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선물로 주실지에 마음 부풀었고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려야 할지 걱정으로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저희는 대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설렘과 고단한 길★

—청양 다락골과 안양 수리산 교우촌—

신부님 가족의 연보를 적은 글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탄생의 설렘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엄마들이기에 제 자식의 탄생과 그 자식을 키우면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었습니

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며 그 아이가 커가는 도중에 마음 졸인 일 등등을 나누었습니다.

다락골과 새터가 새 생명에 대한 설렘의 자리였다면 안양 수리산 교우촌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투영되어야 하나? 를 고민하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찾아 충청도에서 강원도를 거쳐 안양 수리산까지 먼 길을 용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믿음 살이를 위해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 또한 내 마음 안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현실과 신앙 살이의 괴리 사이에 자주자주 무너지는, 숨겨놓고 꺼내기 힘든 두려움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길은 무엇일까? 부모의 어떤 모습이 신부님을 그 어려운 고난의 길로 안내했을까?

어떤 모습이 그 어려운 길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했을까?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질병이 무섭다고 숨어버린 자식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들의 '그 길을 따라 걷다'를 보면서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 하였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의 길★

—봉암 공소, 신시도, 당고개 성지—

조선이라는 땅에 구석구석 신부님 당신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이, 하느님을 알리는 일이 이렇게 모진 그리움을 남겨야 하는지 새삼 울컥한 마음을 안고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신시도에서 바라본 저 너머 군산 땅은 그저 조선의 한 곳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뭉쳐진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가슴 아리게, 눈이 시리게 바라보고 또 바라 보았을까? 우리도 그냥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곳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고개 성지는 핏빛을 지우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 그늘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저 너머에 가슴 아픈 모정이 숨어있습니다. 배고픈 자식을 보고 흔들리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으며, 가족의 죽음에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하느님을 향한 그리움이겠지요?

★ 기쁨과 행복의 길 ★

—부여 도암골 성지, 배티성지, 멩에목 성지.—

“좋기도 좋을시고 “ 노래가 절로 나왔던 성지 순례였습니다. 복사꽃이 피어있는 길을 상상 하고 그 안에서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살았을 신앙 선배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좋으시죠? 신부님과 신자들의 만남의 자리에 피어나는 우리는 도통 알 수 없는 사랑의 그림자와 이곳에 신부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느님의 뜻의 경이로움, 같은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선조들의 행복이 손에 잡힐 것 같아 부러움의 손길을 내민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고 자유로운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나와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 이 좋은 것을 만나는 누군가에게 말 건네본 적이 있는지..... 모두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얼굴은 모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 희망과 믿음의 길★

—울산 간월, 죽림 살티 공소, 부산 수영 장대 순교지, 부산 오륜대 순교자 묘역, 울산 병영 장대 순교지, 경주 진목정 공소.—

신부님, 우리는 이 길에서 희망과 믿음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쏟아져 내리는 온화한 빛은 우리의 마음에도 그 빛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득히 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와 몇 걸음 앞에 놓여있는 동천 강변 그리고 나란히 누워 계신 신앙의 선조들, 뿐만아니라 오륜대 순교자 묘역을 방문하여 기도하고 참배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가꾸고 놓치지 않으려는 신앙의 후배들의 애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들어왔습니다. 비록 모든 곳에 죽음이 널려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받아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에게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었고 믿음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신앙의 선배들과 후배들이 나누는 수많은 무언의 담소가 우리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 진리와 평화의 길★

—제천 배론 교우촌, 서울 좌포도청터, 아산 남방제 교우촌.—

신부님, 이 길은 우리에게 함께 함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길이었습니다. 강철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담금질 속에서 보내야 하듯이 우리의 어려움을 견디어 나아감에도 많은 시간을 단련해야 함을 새삼 기억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

리의 나약함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핑곗거리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위의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견디기 위한 새로운 담금질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뒤늦게 또 알아갑니다. 이 견디는 시간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견디어 낸 시간을 보여주는 작은 오솔길임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평화는 입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야 함을 기억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함도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듯이 말씀 안에서 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를 묵상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평화의 길임을 일깨워 주신 곳이었습시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재회의 순간’이라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살아남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 빛의 길 섬김의 길★

— 신부님이 걸으신 모든 길—

신부님,

당신이 걸으신 구만리 고달픈 길은 고달픈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신부님께는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교우들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이 길은 그냥 고달픈 길이였겠지만 당신은 몸소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셨고 기쁘게 가시는 모습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또한 이 길은 저희에게는 빛의 길이었습니다. 빛을 따라가면 순례 기도회 나오는 문구처럼 주님께서 마련하신 사랑의 천상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들떠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빛을 놓칠 것 같으면 저희를 돌보아 주셔요. 그 돌봄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길, 당신의 길 위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참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신부님,

이제 우리는 2022년 5월 22일 배티 성지에서 당신이 걸으신 길을 마무리 했습니다. 해내었다는 뿌듯함과 그 안에 신부님의 향기와 함께였음에 우리는 모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마음이 온전하기를 희망하면서,

문정희 시인의 ‘가을 노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물들어 가는 것
아무에게도 말 못 하고
홀로 찬바람에 흔들리는 것이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가장 깊은 살 속에
담아가는 것이지'

2022년 6월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글쓴이 대표 : 김은희 글라라(내덕동 성당)

함께한 도반 : 오희임 디나(내수 성당)
김옥연 안젤라(내덕동 성당)
주영숙 세레나(가경동 성당)